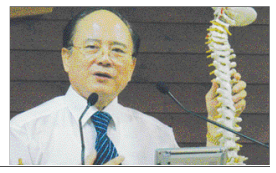
실시간 기독 뉴스 www.icdn.tv

CDN

크리스천데일리뉴스 2011년 2월 20일 WEEKEND 96호 광고 031-429-1674

03 송기택요통크리닉센터전국확대



08 믿음의기업소망인테리어사랑섬김

한기총 후보 금품살포 폭로 파문 확산

김화경 목사“ 대표회장 선거 당일 50만원 받았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회기 대표회장 선거 당시 투표현장에 있었던 김화경목사(한기총 스포츠위원장)에게 5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독교회관에서 김화경목사는 양심고백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길자연목사 선거본부장인 H목사를 투표장 입구에서 만나 4층 화장실에서 봉투를 건네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당시 현장에는 한기총 실행위원 P목사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상임위원장 K목사가 4층 계단까지 따라왔으나 선거본부장 H목사의 제지로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수수를 받은 후 한기총 임원인 K목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바 있으며, 1월 20일 총회에서 길자연목사가 인준이 거부되는 광경도 지켜보았고, 1월 27일 (이광선 목사측)속회 총회에 통보를 받고 나간바 있다 ”고 전했다.

김목사는“ 투표현장에 있던 실행위원으로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목사의 양심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뇌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당일 있었던 사실을 알린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기총개혁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4차 기자회견자리에는 이은재목사와 이광원목사 등이 동참, 현재 사태에 대한 진행사항과 개혁의지 입장을 다시 한 번 알렸다.

이은재목사는 길자연목사에게“ 이광선 대표회장께서 금품살포에 대하여 양심고백 한 것과 같이 조속한 시일 안에 양심을 고백하여 달라 ”면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국교회와 한기총 총대 앞에서 시인하는 것만

이 한국교회의 양심을 살리고, 길자연 당선자도 사는 길 ”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길자연 당선자는 한국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하는 비대위의 사연에 동참하여 달라 ”면서“ 다시는 우리와 후손들이 지켜갈 거룩한 한국교회와 한기총에 금품선거와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외치는 비대위의 활동을 지지해 달라 ”고 전했다.

그러면서“ 순순하게 외치는 비대위의 한기총 개혁을 방해하고, 음해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 ”이라며“ 길자연 당선자를 타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기총의 불법과 타락선거를 바로잡고, 한국교회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광원목사는 대표회장직무정지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기총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길자연목사와 홍재철목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화경목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며 만난적도 없고,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대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진실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 다른 폭로전이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국교회 ‘ 저작권 침해 ’ 대책마련 시급

이름변조 등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적발

이만석목사(한국이란인교회)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각 2백만원,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글마당출판사(대표 최수경)측에 따르면 그동안 형사소송(3건)과 민사소송 1건(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이 진행됐으며, 이중 2건의 형사소송에서 이만석목사에 대해 재판부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내용은 ‘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만 바뀔까 ’라는 책을 이만석목사가 4HIM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하며, 표지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내용을 출간한 것.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마크 A. 가브리엘 박사의 이름변조와 출판법의 관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 200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글마당측은“ 이 책은 독점계약으로서 그 증거는 ‘ 이슬람이 몰려온다 ’ 시리즈 3권에 해당된다 ”면서“ 당초 글마당과 출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나 정황상 이 책은 글마당의 독점계약에 해당되므로 통상적인 출판법의 관례에 따라 글마당에 3년간 출판권이 있다고 인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된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 베일 벗긴 이슬람 ’에서는 이 책의 많은 부분이 가브리엘 박사의 글을 모태로 썼다는 것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기소가 됐다.

글마당측은“ 70만원의 벌금은 경찰조사에서 글마당이 펴낸 가브리엘 박사의「문화충돌」감수자가 오역해서 수정한 부분까지 이만석목사가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때 이 책은 저작권법 위반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에 ‘ 이슬람을 경계하라 ’는 김희태목사에 대한 건으로 ‘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을 받았다. 글마당측은“ 이문제도 이만석목사와 또 다른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이라면서“ 저작권 위반 고발사안은 ‘ 친고죄 ’이고, 이만석목사에 대한 고소가 없다고 결론되어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결론에 따라 검찰의 지적대로 이만석목사를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 ”이라면서“ 김후태목사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내용증명과 직접 면담을 통해 설명하기 까지 하였고 여러 증거 정황이 있어 즉각 항고로 검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글마당측은 이만석목사의 저작권위반 두 책에 대해 판매중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최수경 대표는 기각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상 위임장은 개인에게 해 줄 수 없고 반드시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대리인은 변호사로 가브리엘 박사가 글마당에 써준 위임장은 형사고발사건에 있어 효력이 있었지만, 법률상 민사소송에서는 저자인 가브리엘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이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결과 이미 책이 나온 다음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들었다 ”면서“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실효가 없기에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본안소송에 들어간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명된 책 ‘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만 바뀔까 와 ‘ 베일 벗긴 이슬람 ’가 이만석목사의 이슬람 특강 때 판매되고 있다 ”면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책 판매가 지속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유현우 기자

“ 개혁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

이광선 목사 강력한 개혁 의지 표명

한기총 제22회 정기총회 속회에서 새 대표회장 선출시까지 대표회장 직무를 연장받은 이광선목사가 9일 한국교회 개혁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목사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며“ 한기총은 개혁되어야 하고, 이번 기회에 한기총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기총의 환부는 더 깊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 제21회기는 파행됐다. 파행의 원인이 어떤 것이든 간에 대표회장으로서 부덕한 소치로 생각해서 한기총 구성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며“ 설 연휴 기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한기총을 바로 적법절차에 따라 인수인계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고 전했다.

이어“ 한기총은 20년의 성인이 되는 역사를 가졌지만 2003년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로 인해 금권선거에 병들게 됐다 ”며“ 한기총 개혁을 하려 몸부림치다 좌절되어 이제는 개혁조차 할 수 없는 자격상실한 사람이 됐다. 그렇지만 썩어져 가는 나무에 새 살이 돋아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목사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한기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희망있는 한기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다짐을 해야겠다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하게 됐다 ”며 한기총이 꼭 개혁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1년 하는 대표회장은 소모적이다. 2년 단임제를 주장한다. 젊은 세대를 총회에 영입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한기총 본부 내부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고 능력있는 분들로 상임위원장과 임원진, 특별위원장, 사무처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면서“ 개인, 정치관계에서 중립적인 일을 소신껏 할 수 없어 본부 인사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절대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며“ 반대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이 일을 같이 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법 절차에 의해 대표회장이 선출되면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며“ 법적 대응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혁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어 법적대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다같이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목사는 한기총의 개혁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과 ‘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기도회 ’를 오는 2월 17일 오후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할 것을 밝혔다.

이목사는“ 이 기도회는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개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운동으로 전개하며, 전국에 흩어진 성직자들에게 서명운동을 함께하겠다 ”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가에 힘이 되는 거룩한 단체임을 알려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최성주 기자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창립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3개 성결교단은 한국성결교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한국성결교회연합회를 새롭게 결성했습니다.

대표회장
노희석 목사
<예성 총회장>

공동회장
원팔연 목사
<기성 총회장>

공동회장
이영식 목사
<나성 총회감독>

간 사
송윤기 목사
<기성 총무>

간 사
최형영 목사
<나성 총무>

간 사
최귀수 목사
<예성 총무>

1. 임원
대 표 회 장 : 노희석목사(예성 총회장)
공 동 회 장 : 원팔연목사(기성 총회장) 이영식목사(나성 총회감독)
공동부회장 : 주남석목사 오세화목사 석광근목사 권중호장로 탁수명장로
서 기 : 나세웅목사
협 동 서 기 : 이종복목사 조재수목사 정덕균목사 김영수목사 곽일귀목사
회 계 : 이철구장로
협 동 회 계 : 이창수장로 이일재장로 성해표장로 황하성목사 김영준목사
간 사 : 송윤기목사(기성 총무) 최형영목사(나성 총무)
최귀수목사(예성 총무)

2. 분과위원장
신 학 분 과 : 정상운박사(성결대총장)
교 육 분 과 : 김두성목사(예성)
해외선교위원회분과 : 김원교목사(예성)
국내선교위원회분과 : 고용복목사(예성)
사 회 복 지 분 과 : 노윤경목사(예성)
부 흥 분 과 : 배진구목사(기성)
평 신 도 분 과 : 서종로장로(예성)
홍 보 출 판 분 과 : 이종훈장로(예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합동 42명 총대 금품수수 양심선언

"잘 부탁한다"1인당 100만원씩 전달

"부정선거 불법인준 길자연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 아닙니다. 길자연목사님, 이제 그만 하십시오."

예장합동 교단 소속 42명의 총대들이 제95회 총회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추대된 길자연 목사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았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길 목사의 후보 등록시 허위사실 기재와 이중직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비대위원 최귀수목사가 제시한 문건에는 '총회가 개최된 대명콘도 218호에서 길자연목사와 선거대책위원장 홍재철목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강주성목사는 "강원도 대명콘도에서 1인당 100만원씩 살포하는 현장에 있었고, 홍재철목사가 직접 금품을 살포했다"고 폭로했다. 또 "잘 부탁한다며 금액을 전달했고, 본인도 받았다"며 "42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목사는 "앞으로 저도 개혁되어야 할 사람이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 교회를 부패타락시키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개혁되길 바란다"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법 타락선거가 너무도 횡행하여 누군가는 나서야 할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금품수수의 양심선언을 환영하며 소속교단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또한 길자연목사에게 총회 인준 부결을 수용하고 용퇴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 및 불법행위로 고발 조치된 길자연목사의 불법과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선관위는 후보를 징계하지 않고 실행위원회에 후보로 올린 것과 실행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발표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규탄했다.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비대위는 인준이 부결된 길목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처분, 한기총출입정지가처분과 업무정지가처분으로, 이승렬목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불법문자발송자는 명의도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했음을 밝혔다.

신광수목사는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친다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회기는 더욱 혼탁한 선거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선관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불법으로 길자연목사를 당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내홍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목사는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한기총의 암담한 현실을 보고 있다. 한국교회는 벼랑 끝에 서있다"며 "무너져가는 집을 세우는 심정으로 총무들이 일어났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희망을 보고 싶다"고 전했다.

최충하목사는 "저 자신부터 한국교회와 한기총과 교단이 살 수 있다면 총무직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에 나선 만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신대 총동문회 회장 박영길목사 취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제17대 회장에 박영길목사(명문교회)가 취임했다.

21일 명문교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회장 박영길목사는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가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역, 장학사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동문화합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목사는 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타 교단에서 목회하고 있는 4천6백여 동역자들이 있다"며 "온 동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총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매월 모임을 갖고, 나가있는 동문들을 조직에 포함시켜 총회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영근목사의 사회로 가진 이날 예배는 신용현목사의 설교에 이어 나용화박사, 신용현 장세일 최병국 윤항기 정학채 박형진 이기준 목사 등이 등단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CDN 크리스천데일리뉴스 2007.5.18 등록번호경기다 01010

발행인/편집인 文炳元 대표이사 정관창 부사장 김마리아 주필 안상준 인쇄인 김규석

■(431 - 080)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1029 - 6번지한국프라자401호
■ 전화: 031 - 429 - 1674 ■팩스 : 031 - 429 - 1675 ■ E - mail : cdntv@hanmail.net
■후원계좌 : 기업은행185 - 063346 - 01 - 015 (예금주씨디엔) ■ www.cdntv.co.kr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성결성 수호 3개 교단 '연합회'창립

한국교회 새로운 연합정신 모델 제시

'성결성'을 수호하는 3개의 교단이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련)를 구성, 한국교회에 새로운 연합정신 모델을 제시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모인 한성련은 최근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성결성(聖潔性)을 수호하고 선포하는 성결로 하나 된 형제교단'으로 연합할 수 있는 신앙노선이 제시됐고, '복음주의 신학과 전도(선교)중심적 교회의 사명에 동의한다', '성결의 은혜는 성령의 충만이며 온전한 회복이자 근본적인 삶의 변화임을 고백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다음세대와 통일한국을 준비한다', '신학, 국내-외선교, 평신도, 사회복지, 부흥, 홍보출판 운동과 사역 등, 여러 방면에 있어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기운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됐다.

창립총회에서는 한성련 준비위원회가 임원 안을 마련해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표회장으로 노희석목사(예성 총회장)를 선임했고, 공동회장으로는 원팔연목사와 이영식감독이 선임됐다.

회칙으로는 총회는 매년 6월 개최하고, 대표회장 순번제 선출(예성, 기성, 나성), 임원 및 8개 분과위원회 조직, 교단별 분담금 등의 내용이 결의됐다.

노희석 대표회장은 "복음 위기의 시기에 성결의 이름으로 복음을 더욱 힘 있게 세워야 한다"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신부, 완전한 성결의 능력으로 한국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킬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해 나갈 책임이 주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며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선도하자"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했다.

한성련은 1998년부터 시작된 기성과 예성교단 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1년 창립됐다. 2007년까지 신년하례회와 총회, 여름성경학교 교재 공동발간, 강단교류, 공동신학세미나, 세계선교대회 공동개최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그러나 2007년 성결교회 창립 100주년 시점에 통합 논의가 무산되면서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으나,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교단까지 포함하는 3개 교단 연합기구로 새롭게 재조직 됐다.

유현우 기자

기하성 사실상 통합, 빠르면 5월 마무리

통합 총회장 이영훈 목사 추대, KNCC 회장 취임

3,000교회 200만 여명의 성도들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의 통합추진으로 하나가 될 예정이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목사)과 기하성 서대문(총회장 박성배목사)이 사실상 통합선포를 위한 마무리 단계를 진행, 1차로 통합선포를 5월 안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양 교단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교단통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헌법을 통일하고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기하성연합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통합된 교단 총회장은 이영훈목사가 맡기로 했으며, 교단 순번제 형식에 따라 올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직도 이영훈목사를 추대, 취임식을 가졌다.

이영훈목사와 박성배목사는 임시총회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목표시점은 양 교단에서 동수로 구성해 모든 현안을 진행하겠다.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박성배목사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또한 "현안 문제는 충분한 협의로 진행하고, 잘 협의하면 못 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통합을 위해 한목소리로 입장을 나타냈다.

기하성연합회에 대해 일부에서 '통합은 아니다'라는 시각에 대해 "모든 문제를 다 오픈할 것이고 총대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이영훈목사는 일축했고, 박성배목사는 "교단간의 모든 재판은 끝난 상태다"며 통합의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따라서 기하성연합회를 통해 교단통합 선포하는 통합총회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주 기자

통합 정치부,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 요청

금권선거 당사자 물러나고 새로운 조직 요구

통합 정치부(부장 이정환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임원회 자리에서 결정됐으며, 한기총 금권선거 개혁을 위한 '양심선언'이 이어지고 길자연목사에 대한 인준 문제로 한기총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타 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보류를 요청한 정치부에서는 불법적 금권선거의 당사자들은 물러나고 빠른 시일 안에 한기총을 새로 조직해 정상화 할 것을 밝혔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 헌의안을 내놓는 강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합측이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하게 되면, 연 8천여만원에 달하는 교단 분담금 납부와 총대 파송이 보류된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통합의 영향력으로 인해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유현우 기자

5차원 셀프리더십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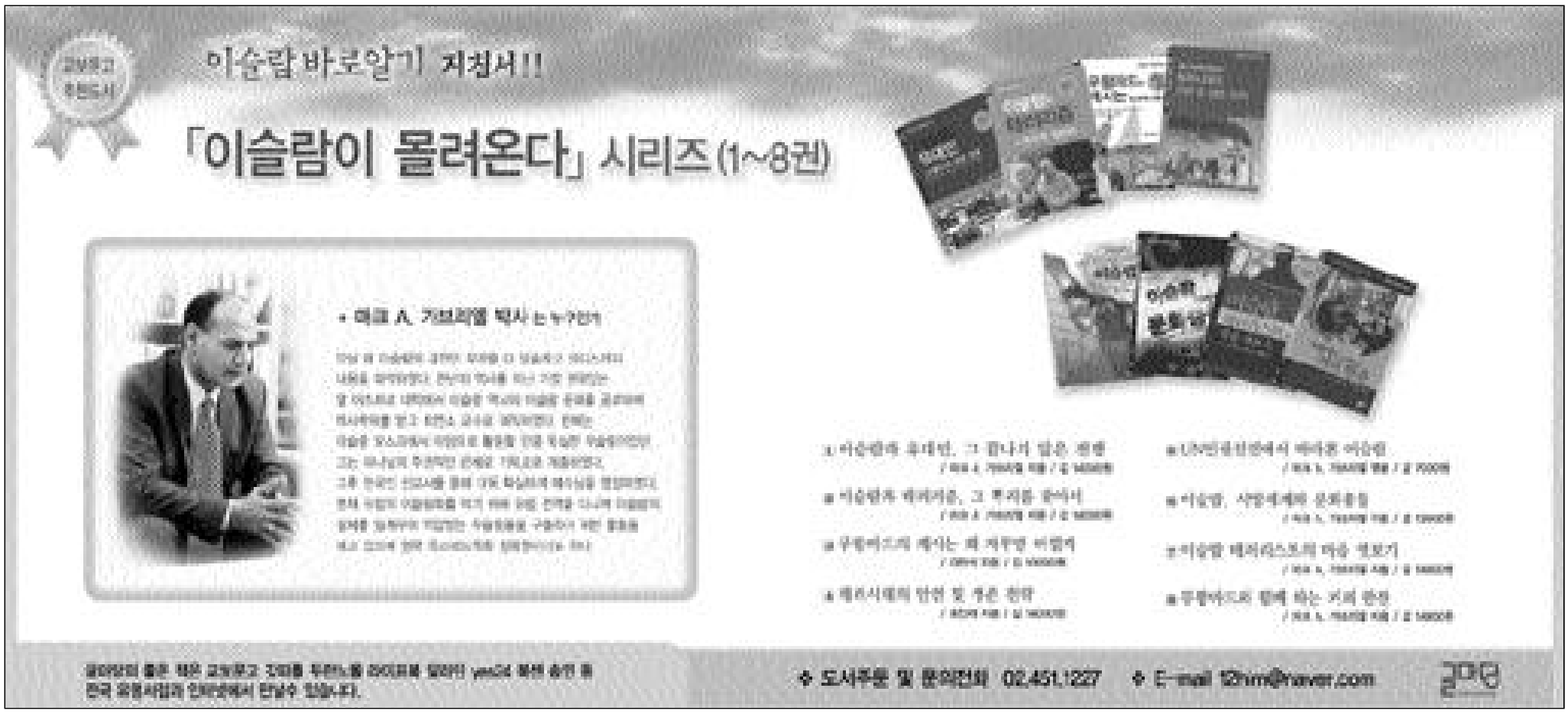
5차원 셀프리더십 습관훈련 세미나가 14일부터 16일까지 용인 로스기념관에서 개최됐다.

5차원기독교교육연구소(소장 홍정근목사)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이 주신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최대화하는 5차원 원리를 통해 성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적 습관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목회자 부부와 평신도지도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훈련받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 신앙생활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라, 키 타임을 확보하라, 특화된 전문성을 배양하라, 시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라, 섬김의 지경을 확장하라, 성찰일기를 쓰라 등의 제목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현우 기자



요통! 지긋지긋한 고통의 종지부 찍다

하루 15분의 운동으로 통증 완전 치료 가능
교회 및 기독 선교단체 건강 치유센터 활용

한국 대체의학의 한 획을 그은 송기택목사(한국전인치유신학원)가 요통을 치유하는 운동요법을 개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송목사는 한국대체의학을 위해 45년 외길을 달려왔다. 평생을 국민들의 척추건강을 위해 온몸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40여년 동안 요통으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는 어릴 적 교통사고는 평생 그를 요통이라는 고통으로 내몰아갔고 그것을 치유해 보고자 수많은 수련과 연구, 치유를 위한 카이로프락틱, 스포츠마시지, 경락 등을 도입하며 한국대체의학의 한 획을 세워 지금에까지 왔다.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40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환자를 치유하면서 항상 요통완치에 있어서 100% 부족함에 목말라 하면서 그는 결국 요통의 끝을 보게 됐다.

모든 국민이 요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요법을 개발한 것이다.

운동기구를 통한 그의 요통치유법은 이제 더 이상 요통은 없다는 슬로건 아래 이 땅에서 요통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요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또한 송기택요통크리닉센터를 각 지역별로 설립하고, 전국교회와 연계해 지긋지긋한 고통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계획이다.

요통은 척추뼈, 추간판(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혈관 등의 기능 이상 및 상호 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허리 부위의 통증을 말한다.

평생 살아가면서 60~90%의 사람이 요통을 겪게 되고, 1년간 발생률은 5% 정도 된다. 이 중 40~50% 정도는 치료 없이도 1주일 이내에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발 연령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요통의 빈도가 높아지고,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노동자에 비해 중노동자에서 더 많고, 특히 약 11kg 이상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직업에서 흔하고, 흡연자에서 더 빈번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운동치료와 관련, 통증을 경감시키고 약화되거나 구축된 근육의 근력을 회복시켜 운동을 증가시키고 과운동성을 가진 척추 분절에 안정성을 부요하여 환자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복근의 강화, 척추 주위근의 신장으로 척추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복근의 근력이 저하되면 요추가 앞으로 굽혀지게 되어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척추 주변 근육에 부담이 가해져 요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운동을 통해 복근을 강화시키고 복강내압을 높임으로써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가 되고 이로써 디스크나 주변 근육에 걸려 있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송목사는 "요통은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하지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거나 하지의 근력 약화, 감각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요통치유법은 하루 15분의 간단한 운동으로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켜 요통을 치유하도록 돕는다"며 "의료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100% 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절충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체의 균형을 진단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의 전체 밸런스를 맞추도록 한다"며 "먼저 가정에서 아픈사람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과 한국교회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인치유신학원에서는 송기택 요통크리닉센터 수련생 및 프랜차이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요통환자, 각종 무도 관련 체육관 종사자, 헬스키퍼 및 관련종사자, 마사지사 등이며, 요통치유학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요통크리닉의 경우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해 교회 또는 기독단체 내 건강치유센터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703-0560, 715-1331

美 가장 활발한 성장교회 탐방 프로그램 개발

건축 양식, 예배 프로그램 등 직접 체험 가능

국내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번역본으로 유명해 진 새들백교회,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윌로우크릭 교회 등 미국에서 최근 가장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 현지 교회 담임목사의 목회관과 교회 건축물 등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우리엘의 '함께하는여행'사가 2001년부터 미국 전국을 순회하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해 온 워십코리아 미니스트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국내 목회자는 물론 평신도 지도자들이 꼭 탐방하여 새로운 경향의 목회 패러다임과 건축 양식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내 소재 S교회에서는 교회당 건축과 맞물려 새해 들어서면서 미국 교회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0박12일간 11개 교회와 세계적인 명상처로 유명한 세도나 지역을 탐방하기로 했다.

이 교회가 방문하는 지역은 미국 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LA를 비롯 전통 보수주의 기독교 문화 도시로 알려진 텍사스 주 휴스턴, 제 2의 라스베가스로 불리는 라플린과 1천피트 높이에 기이한 절벽에 세워진 홀리크로스 교회가 있는 세도나, 미 동남부 지역 대표적인 도시인 아틀란타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홍보 담당자와 교역자들을 통해 직접 교회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교육 내용, 특별한 건축 양식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형식을 진행된다.

특히 현지 신학대학을 마친 현지 가이드가 직접 일행을 인솔하면서 통역을 맡는다.

또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우리엘 임영택사장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4가지로 교회별 선택이 가능하며, 9박 10일 일정과 10박 12일 일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주일에는 레이크우드교회나 새들백 교회 등 현지 교회에서 대예배에 참석하며,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적 일정으로 보내게 된다.

미국의 부흥 성장하는 교회 탐방 일정은 모두 4가지 형태로 7박 9일 일정의 1안은 아틀란타,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2안은 아틀란타, 휴스턴, LA, 3안은 아틀란타, 워싱턴DC, 뉴욕, 4안은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이며, 특별히 10박 12일 일정의 아틀란타, 휴스턴, 라플린, 세도나, LA 지역의 교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70-7169-9000

교계 한기총 철저한 자정과 개혁 '요청

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 한기총 사태 입장 표명

금권선거로 얼룩진 한기총 사태에 대해 교계 단체에서 철저한 자정과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인환)은 "'금권타락선거'의 대표로 상징된 한기총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면서 "이번 사건은 영혼이 심하게 타락한 자들이 세속과 다름없는 물욕과 명예욕을 위하여 정치권의 못된 관행을 흉내내 돈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 요지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면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금권타락선거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은 하루 빨리 모든 직을 버리고 회개하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호소했다.

또한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연합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치를 하는 당사자보다 주변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정치꾼들이 더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무엇 때문에 세워진 것인지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한기총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락한 일부 교계지도자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정과 개혁의 시스템과 개방은 필수적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 대표 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전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이다"고 최근 논평을 냈다.

언론회는 "오늘도 척박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서 빈한(貧寒)한 가운데 수고하는 절대 다수의 신실한 종들을 보라"며 "그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부담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여, '봉사'와 '헌신'을 위한 일에는 경쟁을 하라"며 "'자리'와 '명예'를 위한 일에는 양보하라"고 권했다. 특히 "한기총은 몇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한기총이며, 하나님의 한기총"이라면서 한기총의 인적쇄신과 제도개혁을 요청했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설맞아 사랑의 전령사'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용기목사)은 설명절을 맞아 '사랑의 전령사' 행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1470가정에 자원봉사자와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로와 격려하며 사랑과 행복을 전했다.

설맞이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315가정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등 지방에 소재한 155가정이 포함됐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조희준 대표는 "지금까지 긴급생활지원금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일정기간 온라인 입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는 설을 맞아 재단의 자원봉사자와 임직원들이 총출동해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하기로 했다"며 "각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향후 재단의 사업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대규모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소외계층 후원 행사를 갖는 것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총 6억 8천만 원이 지원됐다.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 의해 2008년 설립한 이후 매년 평균 6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 사회적 소외계층에 생계비 및 주택개보수, 긴급의료비지원, 심장병 시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아이티 구호 한국교회 희망 상승
전문 NGO 선교단체와 협력 사역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이티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희망의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1월 아이티 지진 참사 이후 복구를 위해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최근 콜레라로 인한 제2의 참사가 예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각 교단과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최근 아이티 지진참사 1주년 사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1년 동안 진행된 사업과 집행된 내역 등이 각 교단과 단체별로 보고 됐다. 특히 한국교회가 아이티 구호에 하나로 연합하여 중복 지원된 사업계획이 드물었던 점과, 구호를 위한 실제사역은 전문NGO단체와 연합하는 등 새로운 구호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각 교단 중 합동측은 약30억 원을 모금해 '아이티비전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통합은 아이티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아이티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또한 월드비전, 해비타트 등 구호활동의 전문성과 기존의 인프라를 가진 NGO단체들을 교단이 지원해 진행된 사업보고가 이뤄졌다.

신학 성기호 목사 새에덴교회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에 필수적이다.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9) 한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내용이며,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고, 복음의 본질적 부분이다(고전 15:1-4).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이들 중에서도 그의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는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다.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고 파수를 보던 군인들이 놀라운 일을 보았다. 새벽녘 어두움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천사가 내려와 지진 가운데 무덤 문을 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었다. 파수군의 놀라운 보고를 듣고 거짓말을 시킨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간 후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믿어졌다(마 28:11-15). 진실한 소수의 증언보다 거짓된 다수의 증언이 우세한 경우가 있다. 어떤 아일랜드 사람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 당신이 그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이 4명이나 있습니다 " 했더니 그 혐의자가 "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나는 내가 그 물건을 훔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할 사람을 40명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 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소수의 증인들보다는 못 보았다고 말하는 다수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파수꾼들이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한대로 그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잠들었고 그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간 것이 사실이라면 파수꾼들은 처형을 당하였을 것이다. 무장한 군인들이 무덤 문에 봉인을 하고 지키던 무덤이 비어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무서워 떨며 다락방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부활을 증거하며 "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 4:20)고 말하면서 위협이나 채찍질,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여러 다른 경우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셨다(고전 15:4-8).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도마가 빠진 부활주일 저녁에, 도마가 함께 있던 다음 주일 밤에, 갈릴리 바닷가의 일곱 제자들에게, 500여 신도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에 모인 120여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나타나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환상을 본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후 3일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가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 20:19). 울며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빈 무덤을 보이며 "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 28:6)고 말하며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함을 증명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사도들도 거짓 증인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고전 15:15).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행한 첫 설교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며(행 2:24,32)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계속하여 그의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聖) 금요일은 일년 중 고난 주간에 하루를 지키지만 부활은 52주 내내 지키며 축하한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데일 박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후에는 매 주일 아침 예배 때에 부활 찬송을 불렀다. 그 교회를 방문한 신자가 11월의 어느 주일 아침에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때 데일 박사가 " 저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일요일은 그가 살아나신 날이라는 영광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 라고 말했다 한다. 봄의 한 두 주간에 걸쳐 부르는 부활 찬송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 매 주일 불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부필자의원고는본보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신 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교현황 분석(1)

조항대 목사
세계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정착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선교에 있어서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의 근거인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선교사역을 해온 선교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정착과정에 있어서 선교 전략적 문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선교신학적 배경

분단시대의 한 가운데 있던 한국교회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위해 크게 기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에 빠져 있었고, 그 부끄러움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독특한 신학을 발전시켰다. 한국교회의 이 독특한 신학이야말로 분단시대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며, 청산해야 할 본래적인 부끄러움들을 오히려 강화한 요인이기도 했다.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 선교 신학적 배경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열거하고자 한다. 첫째로 분단시대 한국교회의 신학은 율법의 제 3용법이 결여된 복음주의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몽학선생이고,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된다.

물론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질적으로 새로워진 인간이 은혜에 상응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만, 루터를 바라보는 이들은 은혜 자체를 과도하게 강조하느라고 은혜 받은 자의 상응한 삶을 간과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와 달리 율법을 세 가지 용법으로 구분함으로써 은혜 받은 자의 성화의 삶을 요구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의 제 1용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율법의 제 2용법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재갈과 같은 것이다. 율법의 제 3용법은 신자들을 교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지침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된 삶을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동시에 율법을 어겼을 때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악한 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신자들에게 선행을 가르쳐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이 폐기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루터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은혜에 상응한 삶, 칼빈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율법의 제 3용법을 간과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의 책임적인 삶을 소홀히 하였다.

사실 존재를 규정하는 직설법이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명령법보다 더 강력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루터의 반쪽만을 붙잡고, 그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였다.

둘째로 분단시대 한국교회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을 모르는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모르는 십자가의 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신앙이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을 왜곡하는 것이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말 몇 마디의 고백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된다고 믿는다. 또한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 투성이니, 될 수 있는 한 세상일에는 무관한 듯이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부활의 영광을 외면하고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전투적인 삶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세상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라지나 삯군이라 하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곧 구원자 예수라고 고백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그 자신과 동일화 하셨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상화하고, 이 작은 자들과 대립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속죄의 값으로 치른 값비싼 종교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의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기쁨의 종교이다.

또한 기독교는 부활을 소망하기에 지금 이 세상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종교이고, 지금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는 종교이다. 본질이 그러한데도 한국교회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양자택일함으로써 기독교신앙을 왜곡하였고, 특히 영광의 신학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삶의 현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과제를 외면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분단시대 한국교회의 신학은 소위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을 대립적으로 이해한 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은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물론 바울은 사랑의 근본적인 동기를 상실하고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 아니오 '를 선언했던 것이지, 믿음의 행위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다음호 계속>

유대인 천재교육의 핵심 테필린

축복대신 저주

정관창 목사
뿌리와 가지교회

저주에 대한 경고

제4의 말씀에는 토라를 준수했을 때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과 함께 불순종 및 우상 또는 다른 신을 섬겼을 때의 저주에 대한 경고가 담겨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진노하사

히브리어 원문에서 진노하사에는 아프 aph 와 차라하 charah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프는 격노, 벌을 의미하고 차라하는 점화하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을 지닌다.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 화 anger 로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벌 罰 에 불을 붙여 wrath be kindled 로 표현하고 있다.

저주의 내용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표현으로서 하늘을 닫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소산을 내지않는 가뭄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 가장 혹독한 저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가뭄은 대형 산불같은 또 다른 자연재해를 불러 환경을 파괴함은 물론 경제, 사회 전체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간다.

인도에서는 1900년에 32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뭄으로 목숨을 잃었고 구 소련에서는 1932-34년에 걸친 오랜 가뭄으로 천만명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저주의 끝은 가혹하지만 멸망이다. 멸망이란 민족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멸망

히브리어 원문에서 멸망에 사용된 단어는 아바드 abad 다. 아바드의 의미는 영어로 로스트lost 다. 영어 성경에는 멸망을 죽다, 사라지다라는 뜻의 페리쉬 perish 로 표현하고 있다.

저주의 원인

이 말씀에서 저주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신에 대한 숭배라고 할 수 있다. 구약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한 많은 기록이 존재한다. 구약에서 다른 신들이란 유일신인 여호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을 말한다. 모세와 출애굽 사건 당시 고대 이스라엘과 중근동에는 바알 baal 다곤 Dagon 엘 El 아시마 Ashima 아세라 Asherah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교다. 유일신교란 오직 유일한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종교를 말한다. 유일신교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로 간주된다.

미혹하여와 삼가라

16절의 이방신 숭배 금지에 대한 경고 구절에서 사용된 미혹하여의 히브리어 원문은 파타우 pathah 다.

이 단어에는 기본 뜻인 열려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구절에서는 속이다, 기만하다, 어리석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파타우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말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삼가라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샤마르 sharmar 로 되어 있다.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영어 히드 heed 는 주의를 뜻한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열려있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성경의 저주

유대인들은 저주를 진정한 힘에서 나오는 절대권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주 curse 란 축복의 반대말이다. 성경에는 보복이나 경고 또는 율법의 선포 등 여러가지 성격을 지닌 저주들이 등장한다. 다음은 창세기에 나오는 보복으로서의 저주를 담은 전형적인 구절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14>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17>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창세기 4:11>

강 단

연약함을 고백하면 도와주십니다

이정기 목사
신나는교회

시편 6:1-10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만큼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전반기 삶은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업을 받은 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출4:10>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출4:13> 연약함을 고백할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시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척하지 마십시오. 잘난척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장담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12:10> 그러면서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동기는 불쌍히 여기심이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눅7:13>

한 나병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막1:40-> 귀신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17:15>, 귀신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15:22> 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중에 하나는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발견하면서 삶이 바뀝니다.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강한척하고 잘난척 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에 총 7개의 다윗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내는 과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편 6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아파하며 힘들어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면 회개의 눈물이 폭포수 처럼 쏟아진 것 같습니다. 눈물은 귀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때묻은 영혼을 정화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누추한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영성을 보다 예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그 고통의 상황이 주의 진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책감으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육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2절에서 뼈가 떨린다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영혼이 심히 떨린다고 표현합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고통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3가지를 구합니다. 1.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 나를 고치소서. 그리고 4절을 보면 주의 사랑으로 3.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8-10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확신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 다윗은 나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다윗이 강하게 된 비결은 계속 여호와여 '를 부릅니다. 1절에도 여호와여', 2절에도 여호와여', 3절에도 여호와여', 4절에도 ' 여호와여' 4번이나 부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산 비결입니다.

다윗은 쫓겨 다니면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아들 압살롬의 쿠테타 당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죄악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고, 몸이 아플 때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힘의 비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가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눈물로 요를 적셔보셨습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망해도, 답답해도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연약함을 고백하면 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칼럼 김마리아 목사 생명수교회 히 5:11~14

젖과 단단한 식물의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분량대로 다릅니다. 젖 먹는 믿음, 밥 먹는 믿음,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젖과 단단한 식물의 믿음이란?

1. 젖 먹는 믿음 (12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르듯이 믿음 또한 분량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전 3:2 =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고 기록하며, 벧전 2:2 =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구원의 진리만을 깨달을 뿐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학교에 가는 것은 법과 교육을 배우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찌라도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므로 교회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듣는 귀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 젖 먹는 믿음이었을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백혈구, 적혈구에 면역과 저항력이 생기고 육체의 힘이 생기는 것처럼 믿음 또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젖 먹는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 (14절~)

① 장성한 자 =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며 영적 양식의 성장 단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3:5 =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장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때때로 가시도 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기나 오징어 같이 튼튼한 이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고난도 시험도 넉넉히 넘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② 지각사용 = 영적 분별력을 말하며, 영적 성숙의 증거를 나타내는 단계를 말합니다.

영적 분별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각 작용은 어렸을 때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어른이 되면서 지식을 통해 알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성장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에 익숙하기보다 경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분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연단을 통해 나타납니다.

욥 23:10 =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받아 복음을 증거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③ 선악을 분변 = 영적 성숙의 차이를 말하며, 진리의 수준으로 전하는 것이 다른 단계를 말합니다. 5년 전이나 지금 현재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영적 성숙이 달라졌기에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책을 들었을 때에 당사자는 은혜를 받는데 옆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진리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영적 수준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 2:10 =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각 나라마다 유명한 학교들이 있으며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젖 먹는 믿음을 가진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말씀, 사랑, 겸손, 인내함으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칼럼

인체는 다른 세포, 장기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글/ 배철환원장 강남의림한방병원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옛날 고인들이 사람을 세밀히 관찰하고 연구하다보니 깨달음이 높은 경지에 이른 분들이 그렇게 관찰한 모양입니다.

이 말은 동양 의학 뿐만 아니라 매우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도 이웃사랑의 선용의 원리를 떠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 우리의 몸은 마치 천국과도 상응합니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또 인체의 모든 세포와 모든 장기는 사람이 건강하다면 이웃 사랑의 선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웃 사랑의 선용을 떠난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암세포입니다.암세포는 이웃 세포들에게 가는 영양분, 혈액, 산소를 모두 빼앗아 독식하고 자기만 홀로 자라나는 게 특징입니다.이것이 바로 인체의 지옥이지요.

자, 우리의 소화기내장을 관찰해 봅시다.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치아가 분쇄하는데 혀와 타액이 돕습니다. 식도로 내려가는데 혀와 인후가 돕습니다.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잘 내려가게 연동운동을 해줍니다. 이 때 식도가 자신만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에서는 많은 음식물을 소화되기 쉽게 부수고 소화액으로 섞습니다. 이 때 위는 자신을 위해 실속을 차리는 일은 전혀 하질 않습니다. 오직 인체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일을 수행합니다.

오히려 이때 담낭에서는 소화액을 적절히 위로 흘려보내 소화를 돕습니다. 물론 다른 장기들도 많이 관여하며 돕지요. 십이지장을 통해 소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흡수가 되어 우리 몸의 활력소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대장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직장, 항문을 통해 찌꺼기는 몸 밖으로 버립니다.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어느 장기 하나 자신의 이웃사랑의 선용을 실천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자기만을 위한 내장의 운동이 있나요? 아뇨 전혀 없지요. 이렇게 인체의 모든 장기와 세포는 이웃 사랑의 명령을 항상 실천하고 있습니다.

만일 소화액이 자기 자신들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무가치합니다. 답즙이 담낭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많은 종류의유동적인 액체들, 답즙이나, 다른 소화액들이나 체내 분비액등의 액체들은 음식물에 대한 소화뿐만이 아니라 대변을 배설하게 하고 심지어 장들을 청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액체 하나만 관찰하더라도 이웃장기,또는 크게 보면 우리 몸을 위해 항상 이웃사랑의 선용을 한시라도 쉬지 않고 실천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체에서 배운 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람 하나 하나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이웃사랑의 선용을 성취하여야할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이웃 사랑의 명령을 받고 태어난 것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사회속의 일원으로 국가의 구성원으로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사회속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고 각자에게 땅 몇 평을 주고 홀로 농사를 짓던지 홀로 가축을 치던지 하면서 먹고 살게 하라고 태어나게 했을 것 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동체 속의 일원임을 망각하고 자신 만의 욕심만을 차린다면 그것은 우리 인체의 암세포와 똑같이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공동체도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유일한 학원 ' 월드비전 기숙학원 '

수험생들이여 기도하라! 합격하라!

대학진학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제2의 도전으로 꿈을 향해 전진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에게 대학실패는 큰 좌절이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월드비전 기숙학원(이사장 심금자권사)이 나섰다.

이 학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앙과 교육을 병행하는 기숙학원이다. ' 양주대성학원 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 월드비전 기숙학원 '으로 개명, 세계를 리드해갈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고 있다.

심원장은 "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한다. 이런 고백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 타 학원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품는 것과 높은 교육의 질을 추구하는 것. 매일 새벽 4시. 심금자권사는 15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기도한다.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각각 개인마다 기도로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다.

"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두려웠어요. 나이가 많아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래서 심리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성장기의 아이들은 늘 관심과 애정의 손길이 필요해 심원장은 거의 매일저녁 아이들과 상담을 하고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 가장 힘이 드는 것을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서 대화를 나누어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

진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 통 한다는 것이 심원장의 접근방법. 기숙학원 아이들은 이러한 심원장을 ' 친할머니 '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생이 지도자는 개인 · 그룹 맞춤 교육

또한 기숙학원 아이들은 하루를 열기 전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한다. 큐티를 통해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비전과 목표를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자연히 평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공부가 잘된다고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질 높은 교육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다. 또한 질을 높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강사료가 나간다.

월드비전 기숙학원은 8년 전 전국 최초로 인터넷 강의실을 개설, 시대를 앞서나가는 감각을 보여 왔다. 3년 전부터는 전국 최초로 영어와 수학과목을 특화시킨 영 · 수 집중프로그램을 선보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거기에 서울대생 학습매니저팀 시스템을 구축, 서울대생의 24시간 시간활용법을 고스란히 전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서울대생이 지도하는 개인 및 그룹지도는 기숙학원만의 자랑이다.

시간이 ' 금 '인 고3 수업생에게 ' 시 (時) 테크를 지도해 강의중심 학원시스템을 극복하고, 각 과목 간 학습안배를 위한 전문 개인조율사로 뒀다. 거의 학생 5명에 1명꼴로 선생님이 배치되어 전 과목 질문을 커버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선생님을 상주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숙학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재정 중 60%가 강사 사례비로 지출된다.

회장 이윤희장로는 " 현재의 기숙학원비로는 타 학원에 비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다. 학생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신앙을 겸비한 최고의 교육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같은 교회 출신인 김인해(예비고3)와 김진현(예비고3) 학생은 방학을 맞이해 예비 고3 과정에 등록했었다.

이들은 "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학원에 있으면 공부하는 능률이 배로 오르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며 " 특히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변화가 있었고, 비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많았다 "고 말했다.

신앙과 학업 둘 다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드비전 기숙학원 학생들은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특히 이곳에 오는 학생들은 40% 정도가 목회자와 장로의 자녀들이었다.

이윤희장로는 앞으로 월드비전 기숙학원 같은 곳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생겨나길 바라고 있다. ' (몇)등 과 ' (몇) 평 '으로 나누는 한국사회에서 신앙을 가진 진정한 리더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장로는 " 학생들을 200여명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아마도 이윤이 남을 것이다. 그때에는 지역사회와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다. 현재는 정원의 10%인 15명 정도가 장학금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 내가 어릴 적 너무 가난해 중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중학교 시험을 봐 우연히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도 그 기회를 전해 주고 싶다 "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 기숙학원은 신앙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장학생을 선발,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및 학교의 대표가 추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학원비는 물론 대학 첫학기 등록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장로는 " 성년기에 접어든 수험생의 나이는 자칫 세상물결에 휩쓸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 면서 " 우리 학생들이 신앙적,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고 밝혔다.

031-871-8740 www.w-vision.co.kr

칼빈대 종합감사 총장 불법 드러나

교과부 사학감사팀 ' 총장겸직 ' 등 불법 지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사학감사팀이 칼빈대학교(총장 길자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한 후 크게 9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가지 부분은 길자연목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향후 교과부의 감사처분 결과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길목사와 관련된 ' 총장겸직 '' 교원인사문제 '' 교수채용 '' 자금운영 ' ' 학교보수공사 ' 등의 감사지적사항은 학교 법령을 무시한 불법성이 명확해,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사학감사팀이 실시한 종합감사는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다. 당시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 것으로 특정 민원의 내용만을 다루지 않는다고 종합감사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28일 감사를 마치며 간단하게 지적된 항목들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28일) 길자연목사는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 근간 칼빈대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면서 " 5년 동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문제로 교과부와 진행된 모든 재판에서 이겼고, 이 문제가 끝나는 미묘한 시점에서 진행된 칼빈대 종합감사는 지혜롭지 못한 것 '이라고 비판을 한 바 있다.

특히 " 마귀가 역사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면서 "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누가 정의의 편에 서있는지 사실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고 단언하며 현재 한기총 내에서 대표회장 인준 논란과 함께 이번 종합감사 내용을 염두 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교과부 감사 결과 길목사와 관련된 불법사항이 드러나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에 대한 논란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칼빈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8월 교과부 지시에 따라 칼빈대 민원관련 소명자료 제출문서로 6가지 사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 자료에 이미 ' 교원퇴직금적립기금유용 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을 무시하고 총장이 임의로 기금을 해약하여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반임이 판단됐다.

이와 함께 직원채용문제(길목사의 측근 채용 및 과다 봉급지급), 교수임용문제(길목사의 장녀 외 4명의 임용과정), 학교보수공사 수의계약 실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에서도 현재까지 총장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팀이 첫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길자연목사의 총장 겸직 문제였다. 당시 신문광고를 통한 총장모집공고에서 총장은 ' 겸직불가 라는 것을 명시했고, 2007년 3월 16일자로 길연목사는 ' 겸직해소 확인서 를 통해 ' 총장직에 청빙될 경우 그 직위에서 사임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는 사인과 도장을 찍어 칼빈대학교 총장인선위에 보냈다.

이후 몇 차례의 겸직해소 확인서 및 당회장 사임확인서, 사임처리관련 노회회의록 사본을 요구했으나, 2007년 10월 16일 ' 합동교단 평양노회 제161회 정기노회에서 왕성교회 당회장 길자연목사가 시무사면 되었음을 확인한다 는 서류만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칼빈대 한 관계자는 " 교과부 감사결과 처분 항목 중 ' 신분상 처분 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면서 " 이번 감사결과를 비추어 보아 신분상 처분이 예상된다 "고 전했다.

또한 "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를 한 자,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 등의 처분의 대상이 '사립대학 감사백서'에 나와 있다 면서 " 교과부의 이후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 대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교정의실현 추진협의회 사이트에도 논란을 빚고 있는 길자연목사에게 사법적 잣대가 드리워질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사이트에는 ' 홈피요원 이라는 아이디로 "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이 사립대학의 부정부패의 불법을 가리는 바람막이가 될 수 없다 면서 " 사학비리의 주범들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구속 수사하여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 이를 위해 칼빈대의 감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대로 사학비리 사범 구속 촉구 성명 및 투서를 집중적으로 감독관청에 제기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회복 중요성 알린다

한 · 이성경연구소 아셸 인트레이터 목사 초청 집회

한이성경연구소(KIBI · 대표 송만석장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에서 아셸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 초청 집회를 개최했다.

오후 집회는 ' 이스라엘과 예슈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저녁 집회는 ' 일어나 빛을 발하라 ', '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라 ', ' 주여 나를 보내소서 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아셸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는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1977 ~ 78년 중앙아메리카를 여행하던 중 여성 복음 전도자가 스페인어로 전도하는 소리를 알아듣게 되면서 깜짝 놀랐다. 전혀 배운 적이 없던 스페인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됐으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됐다.

메시아닉 쥬(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가 된다는 것은 봉변과 테러를 당하고 집이 불태워지는 등 유대인 공동체내에서 엄청난 핍박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또한 인생의 진로도 바꾸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기존의 삶을 포기했다. 이후 그는 볼티모어에 있는 히브리대 석사 과정을 거쳐 메릴랜드 메시아 성경연구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지막 때의 교회와 이스라엘>, <그날이 속히 오리라> 등이 있다.

한 · 이성경연구소(KIBI)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고, 영화 <회복> <용서>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 이번 집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전하고 한국교회에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는 성령 집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결식아동 위한 체육대회

연예인 봉사단체 '사단법인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이사장 최수종, 이하 '100인 이사회')가 방학 중 결식아동들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 100인 이사회 '는 선행과 봉사에 뜻이 있는 연예인들이 나눔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지난 해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 100인 이사회 '는 최근 굿네이버스와 함께 결식아동 방학교실 ' 희망나눔학교 체육대회 에 참여, 서울 강동지역에 있는 200여명의 결식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이야기

"성경 속의 短想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5:34)

조영호 지음 | 도서출판 CDN | 183P | 값 7,000원 | 구입문의 031-429-1674 |

- 기 자 모 집 -

CDN 크리스천데일리뉴스와 함께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CDN 크리스천데일리뉴스는 지난 1998년 설립되어 실시간으로 기독 교계 뉴스를 전달해 왔으며, 2007년 3월부터 주간 지면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 기자남여 00명 (취재편집 동영상관리등)

지원자격 - 세례교인이상, 전문대졸이상,
안양과천 인근지역우대

서류접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1통,
졸업증명서(대학교)

문의/ 031-429-1674 팩스/ 031-429-1675

이메일/ cdntv@hanmail.net

http://www.cdntv.co.kr

서울종합예술학교 함초롬 대상

‘ 당신의 사랑 때문에 ’대상 선정

서울종합예술학교(이사장 김민성)가 최근 SAC아트센터에서 CCM 콘테스트 제2회 지저스송 페스티벌 본선을 개최했다.

CCM러브, 두란노뮤직아카데미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함초롬(삼일교회)이 부른 창작곡 ‘당신의 사랑 때문에’가 대상으로 선정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금상은 육강환 밴드의 ‘하나님 사랑’, 은상은 김홍준(여주대 실용음악과)의 ‘내려놓음’, 동상(크라이플)은 홍임표 밴드의 ‘주님 것이라 가 각각 선정되어 상금 1백만원, 50만원, 30만원을 받았다. 이외 부문별 대상 중 중창은 조덕우의 ‘다짐 이, 솔로는 이은혜(동대문선교교회)의 ‘신실하신 주’가 차지했다.

전체 58개 팀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가해 1, 2차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실력을 겨룬 이날 행사에는 약 2백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으며 심사위원으로 김명식(서울종합예술학교 CCM학부 학부장), 장욱조(복음성가협회 중경회장), 노문환(CBS 치유콘서트 진행자), 윤영훈(명지대학교 교목 및 교수), 장윤영(CCM사역자) 등이 참여했다.

김명식 학부장은 “참가 팀 모두 창의적이고 자유로우며 탁월한 음악으로 참여해 주었고,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본교 입학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 수상자들과 꾸려갈 학교생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서울종합예술학교 CCM학부는 보컬, 예배인도, 기악(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작, 편곡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크리스천 아티스트와 교회음악 지도자, 예배음악과 교회의 여러 행사를 실제적으로 기획 · 진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성서대 2012년 개교 60주년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

오는 2012년 개교 60주년을 맞는 한국성서대학교(총장 강우정)가 대학 설립의 뜻을 되새기고 새 역사 창조를 향한 발전의 계기가 될 기념비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설립자 故강태국 박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꿈꾸며 ‘한국의 복음화 돌 이끌어 갈 복음전도자 양성을 위해 1952년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새문안교회에서 ‘한국성서학원’의 문을 열었다. 그 후 60년, 한국성서대학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도전을 펼쳐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이호우 대학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쳐실장과 주임교수 및 각 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기념사업의 윤곽을 세웠다.

이번 60주년 기념사업 주제는 KBU - Kokkos(밑알정신), Bible(성서사상) 그리고 Universe(한국과 열방의 복음화) 로 정했다.

사업의 윤곽을 보면 ▲KBU 발전기금 ▲60주년사 편찬사업 ▲학술강연 ▲ 문화공연 ▲개교기념식 등이다. 기념사업은 2012년 3월 5일 명사 초청 학술강연을 첫 신호탄으로 막을 열게 된다.

여러 사업들은 일정과 맞물려 진행되다 개교 기념예배 및 비전선포식이 펼쳐질 5월 10일 절정을 이루며, 6월 22일 학술강연을 마지막으로 4개월에 걸친 기념사업의 여정은 모두 끝을 맺는다.

이호우 위원장은 구상한 사업들이 “ 역경을 이겨내 온 성서인의 지난 발자취에 대한 자축과 다가올 미래의 변화와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응전해 가려는 굳은 의지의 표현들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의 장, 희망을 보다

씨+뮤직 윈터페스티벌 열정의 무대

숨어 있는 건강한 실력파 음악인 및 문화인들의 장을 열어주어,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 창조적 리더를 길러 내는 크리스천 프린지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아인스월드 테마파크에서 열린 <씨+뮤직윈터페스티벌>은 강추위의 악조건 속에서도 매일 천여명의 유료 관객들이 모였고, 150여명의 아티스트, 80여명의 스탭들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뜨거운 열정의 무대가 이어졌다.

테마파크 내외부에 총 4개의 무대(World Stage, White Stage, Fresh Stage, C+Cube)가 마련되어 보고 싶은 공연 및 콘텐츠를 선택해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인회와 파워특강, 전시회, C+Cafe등 무대공연 이외의 행사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어느 공연장에서도 한 번에 만나기 힘든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씨뮤직윈터페스티벌에서 이어져 관객들의 호응이 한층 뜨거웠다.

첫째 날에는 YB(윤도현밴드), 마커스(Is it), 곽윤찬트리오, DJ Wreckx&Riverscrew, 소향, 나들밴드, 히데오고보리, 한스밴드, 에보니힐, 라스트, 아일랜드시티, Transition(UK)의 공연과 가수 션의 메시지가 있었다.

참여아티스트들은 꼼꼼한 무대준비로 모든 공연을 밴드 라이브로 진행했고, YB(윤도현밴드)는 YB 공연 중 잊지 못할 공연이 될 것 같다며 3번의 앙코르요청에 모두 응하며 관객들과 하나가되어 호흡했다.

둘째 날에는 New Sound With 천관웅, 예레미, 심삼종 밴드, 글루미 몽키즈, 소울싱어즈, 해오른누리, 강찬, 바람을 가르고, 글루미 몽키즈, 바닐라 어쿠스틱 등의 공연이 있었다.

관객들은 야외 무대인 World Stage의 와일드하고 웅장한 분위기와 실내형 무대인 White Stage의 화려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접하며 서로 다른 공연장에 온 듯 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셋째날에는 Gary Valenciano(PHL), PK, 송솔나무, 소란, 에스더, 라즈베리필드, 권우유, 크라이젠, 박광식밴드, 폴라로이드, 스탑크랙다운(다문화밴드)등의 공연과 김동호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김동호목사는 젖은 아궁이에 처음 불을 붙일 땐 쉽게 꺼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피면 장작이 마르고 방안이 훈훈해지는 것이라며, 페스티벌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문화를 향한 젊은이들의 열정이 보기 좋다고 격려했다.

그 밖에 C+Cube 무대에서는 매직, 버블, 아카펠라 등의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매일 저녁 6시에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의 공연이 진행되어 관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프로 뮤지션들의 장 뿐 아니라 신인 및 아마추어 뮤지션의 장인 Fresh Stage가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Fresh Stage 참여 아티스트는 페스티벌 3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기획단의 심사를 거친 뒤 선별하는 방식으로 무대에 세워질 아티스트가 정해졌다.

80여석 정도의 작은 공연장이 주어졌지만, 이 무대를 위해 연습하고 기도해 왔으며, 거의 모든 팀들이 대기실에 들어서면 바깥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통성기도로 무대를 준비했다.

장르도 랩, 힙합, 밴드, 어쿠스틱, 워십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다른 무대들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수준높은 공연이 제공했고 그만큼 관객들의 관심도도 높았다.

페스티벌을 방문한 교계 및 음악 관계자들은 열정적인 신인들의 자세를 지켜보며 건강한 문화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 연휴의 첫째날이기도 했던 페스티벌의 셋째날에는 필리핀의 마이클잭슨이라 불리는 Gary V의 무대와 다문화 밴드 스탑크랙다운의 공연으로 페스티벌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과 인지도가 높은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 때문에 방문한 한국인 관객들이 조화를 이루어 G-Day(Global Day)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날 티켓을 구입하여 페스티벌을 찾은 외국인들은(다문화 이웃 및 외국인 50% 할인) 피켓에 Gary V를 응원하는 문구를 써서 준비하기도 하고, 페스티벌 기념품을 구입하기도 하며, 한국인 관객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고, 아티스트의 사인회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국제 뮤직 페스티벌인 만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인건비에서 예산을 줄여야 했던 조직위는 부족한 인력난이 가장 큰 숙제였다.

그런데 1-2개월 전부터 씨+뮤직윈터페스티벌의 소식을 듣고 전국각지에서 씨뮤페人(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기획 AD로 지원하여 사전 준비부터 함께 한 봉사자도 있었고, 씨뮤직 홍보특공대에 합류하여 사전 길거리 홍보부터 함께 뛰어준 봉사자도 있었다.

첫 걸음을 뗀 국제 크리스천 프린지 축제 <201씨+뮤직윈터페스티벌>은 건강한 문화의 형성을 갈망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아티스트, 관객, 문화사역자들이 힘을 보태어 함께 만든 작품이었다.

페스티벌에 방문한 각계의 관계자들은 씨뮤직페스티벌이 지속되어야 할 건강한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첫 행사인 만큼 인지가 적고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을 아쉬워하며, 홍보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연합과 지원을 다짐했다.

허건 감독은 “ 씨뮤직페스티벌은 주최 측이 제공하는 유수한 컨텐츠와 유명한 Artist가 메인이 아니고 모두가 서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어우러져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의의를 두었다 "고 전했다.

유현우 기자

이영철 로고스치과병원 원장‘ 성경공부 사랑 ’

강서CBMC 창립, 바이블 아카데미 개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결심하는 새해 목표 중 하나는 성경 읽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 약속은 한 해 동안 꾸준히 못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결심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없는 것과 성실성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을 사랑하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공부를 좋아하는 치과의사인 이영철원장(로고스치과병원)은 자신이 느꼈던 성경공부의 즐거움으로 병원이름도 로고스(말씀)다.

오는 22일 강서 CBMC(한국기독실업인회)를 창립하고 그 안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인 이 원장은 성경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꾸준히 할 수 있는 아카데미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원장은 “ 예전부터 CBMC모임과 관계없이 성경에 대한 모임을 기획하고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면서 “ 바이블 아카데미는 CBMC의 목적에 한 부분으로 성경공부 모임이다 "고 소개했다.

또한 “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각자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 "면서도 “ 교회 내에서 남자의 비율이 낮고 성경공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 진단했다.

이어 “ 성경공부에 대한 명분과 함께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면서 “ 일터지도자 ‘바이블 아카데미’는 학기로 운영이 되고 각 전공별 교수진들을 초빙하여 진행된다 "고 설명했다.

특히 “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이어 29장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면서 “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명으로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영철 원장이 성경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된 이유는 그의 자라온 환경과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이 원장은 한국전쟁으로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절 북에서 피난 온 상황에서 가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복해야할 대상이었다.

이 원장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에 두각을 보였고, 참고서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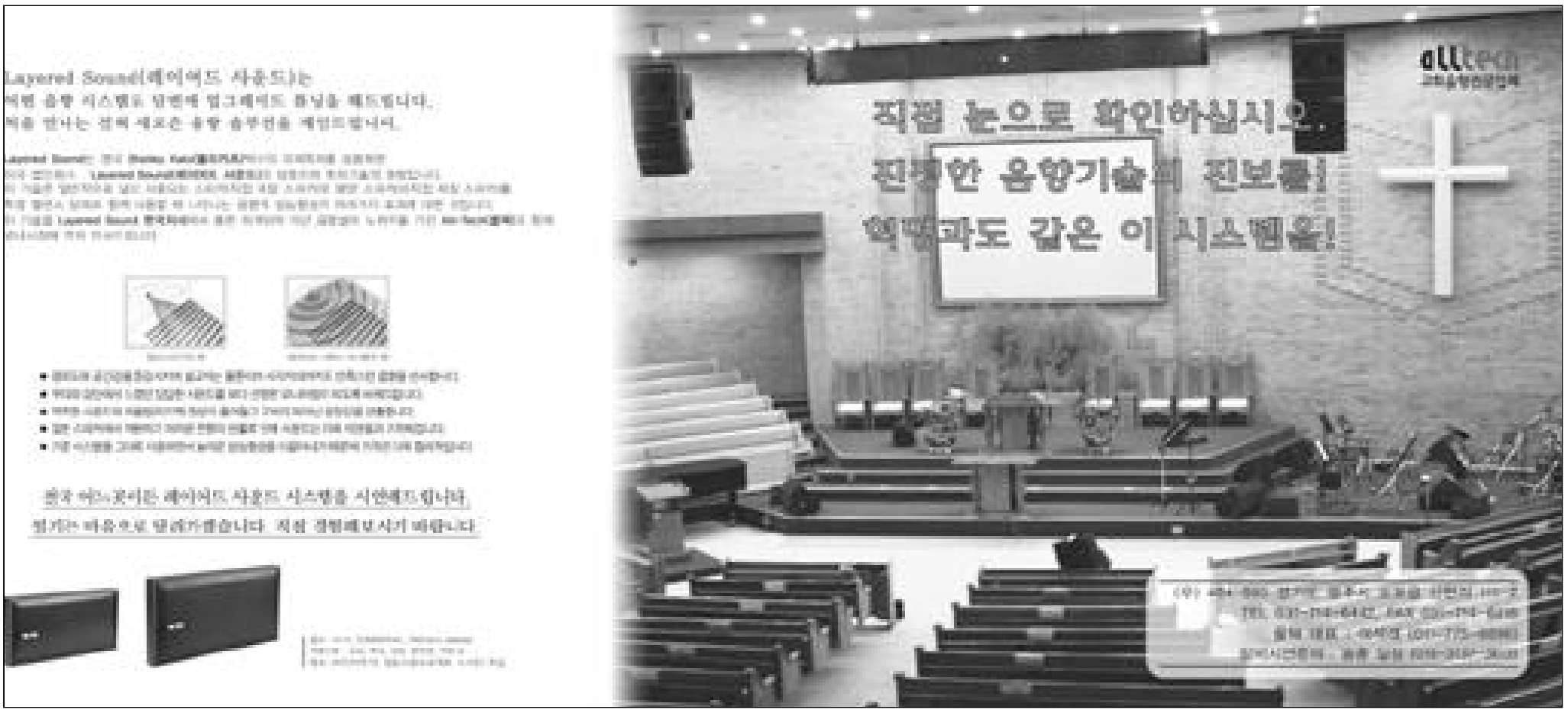
중학교 시절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용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 입학 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종교학 강의신청을 했고, 당시 만난 스승이 신사훈교수(종교학)였다.

이를 계기로 주말이면 신 교수의 집에서 진행된 성경공부에 참석하며,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약 6년 동안 가졌다.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 시절에 배운 성경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즐거움이 이제 곧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에도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원장은 “ 당시에 배웠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성경공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준다 "면서 “ 바이블 아카데미는 성경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통해 삶속에서 체험한 간증을 듣는 시간도 함께 준비된다 "고 전했다.

유현우 기자



이슬람 금융 과세법 반대 목소리

수쿠크, 특정 종교 포교 수단 지적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Sukuk법(이슬람 금융 과세특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득실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서도 지난해 정기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됐으나 의결이 보류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찬반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찬성을 주장하며 나오는 내용은 자본유입의 다변화와 이 자본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 안정성이 있다는 것에 힘을 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측 주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시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도 쉽게 이 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는 최근 논평을 통해 '수쿠크 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언론회는 수쿠크법에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 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면제해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나라에는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무슬림' 이맘 들이 포함된 '샤리아 위원회 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융과 기업, 경제계에 특정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을 통한 특정 종교 포교도 따라오고 이는 심각한 종교편향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쿠크법은 의무적으로 총수입의 2.5%를 '자카트'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송금 내역이 파기되어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며 테러지원가능성에 대한 강한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수쿠크 금융을 운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에 불과하다"면서 "영국은 이 자금 도입 이후, 지하철, 버스, 공항 등에 대한 이슬람 테러와 테러 시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화라는 아젠다와 맞물린다"면서 "이슬람 금융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은 이슬람을 위한 '전쟁의 땅'(Dar al-Harb)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쿠크는 이슬람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유현우 기자

"日 전역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길"

JEM 신임대표 최세웅감독 취임

일본복음선교회(Japan Evangelical Mission, JEM) 제4대 신임대표에 최세웅 감독(계산중앙교회 원로목사)이 취임한다.

오는 28일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취임식을 갖는 최세웅 감독은 1968년부터 40년간 부흥집회를 하면서 목회에 매진해왔으며, 10년 전부터 '전도의 씨앗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5년부터 일본의 목회자들을 초청 '전도의 씨앗 만들기'에 대한 전도 세미나를 열었으며, 120회에 걸친 일본 현지 세미나를 통해 전도 운동을 펼치던 중 하나님께서 일본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다 구체화시켜 주셔서 일본복음선교회의 대표로 섬기게 됐다.

최 감독은 "일본복음선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의 선교단체가 20년간 한 결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며 "선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의 각 도도부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며, 일본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또 "앞으로 일본복음선교회가 국제선교단체로 한 걸음 더 성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올 한해 국제선교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들을 새롭게 모색하며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JEM은 1991년에 시작되어 460여 명의 선교훈련 수료생 및 80여 명의 선교사를 배출한 파송선교단체로, 일본선교훈련원과 국내동원사역, 그리고 일본 현지의 교회개척과 현지교회 협력 등을 주 사역으로 하면서 일본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별히 2011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믿음의기업' 소망인테리어 '안철수안수집사

교회 인테리어 실비로 공사하고 효과는 최대

믿음의 기업 '소망인테리어' 안철수 대표(브니엘교회 안수집사, 사진좌)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119집사 로 통한다.

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바쁜 일이 있어도 열일 제쳐놓고 한달음에 달려오기 때문이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 수도가 동파되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교회에서는 안집사를 찾는다.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교회 일이 먼저기 때문이다. 그는 본인 스스로를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자청한다.

30여년 전 시작된 그의 사업은 기동건설을 운영하며 토목건축에서부터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든 분야를 총괄했다. 관공서를 비롯해 대형급 공사를 도맡아 해왔으나 새벽예배 도중 '내가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일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갑자기 스쳤다.

교회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119집사

개척교회 지원 사명, 궂은일 도맡아

이후 그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세우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특히 개척교회 지원을 사명으로 여기며 어려운 교회를 돕고 크고 작은 일을 떠나 남이 쉽게 하지 않는 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업을 통해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개척교회에서 힘겹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을 뒷바라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명 받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안집사는 아버님이 장로인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는 다녔지만 설교가 듣기 싫어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며 순간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체험하게 됐다. 또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됐다.

그는 개척교회에 출석하며, 목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지금의 교회도 개척 당시 하나도 없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때를 따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물질을 준비해 놓으시고, 홍해를 건너듯 길을 가게 하신다고 안집사는 고백한다. 어떤 때는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를 개척해 헌신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도전정신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집사는 지금까지 20여곳의 개척교회를 돕고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 에어컨 온풍기 설치 등 필요한 물품도 자비량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남모를 목회자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최소한의 실비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동우리교회 조영성목사(사진우)는 "교회 공사를 통해 우연히 만나게 된 안집사는 성실함과 전문성을 갖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며 "말하지 않아도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칭찬했다.

조목사는 이와 함께 "공사를 하고 A/S나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 속을 태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망인테리어에 공사를 맡긴 후 모든 걱정을 덜었다"며 "작은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공사와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고 싶다"고 전했다.

성경의 말씀을 좇아 5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는 안집사. 그는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 나눔과 섬김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한국교회를 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양한 통로로 음성을 주시고, 꿈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분별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윤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 물질에 약해질 때가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문의/ 02-2655-0999, 010-5397-1161>

문화단신

북민협 北 내복 보내기 운동 전개

대북지원 56개 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박종철, 이하 북민협)가 지난달 신청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평양 방북이 8일 통일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통일부는 서면을 통해 "현 남북관계 상황 및 방북목적 등을 고려하여 귀 단체의 북한 방문을 불허함"을 통보했다.

통일는 이와 함께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일체 방북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민협은 긴급 정책위원회를 소집, 한반도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한 동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복 보내기 운동을 준비키로 하고, 15일 하림각에서 개최된 북민협 총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북측은 이례적으로 북민협 회장단 평양 방북에 대한 비자(사증) 발급조치(1개월 유효)를 취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북민협 또한 통일부의 방북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재추진하기로 해 2011년 첫 방북과 함께 남북관계 해빙이 올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성주기자

르완다에 깨끗한 식수 선물해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아프리카 사업장 방문에 나섰던 배우 지진희가 월드비전 르완다 비링기 우부뭬 지역개발사업장을 찾아 지역주민, 아이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전했다. 특히 평소 절친한 배우 유지태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를 계기로 월드비전(회장 박종삼)은 2월 한 달 간 지진희 홍보대사와 배우 유지태와 함께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르완다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르완다 아동 1:1 후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깨끗한 식수가 부족해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르완다 아동들을 위한 식수펌프 후원하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르완다와 관련한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훈데르트바서 전시회 티켓을 제공한다.

특히 르완다를 방문했던 지진희 홍보대사와 유지태가 각각 6백만 원씩 총 1200만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른 후원자들과 함께 동참하여 식수펌프 총 2개를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진희 홍보대사는 "르완다는 내전과 대학살, 그리고 오염된 물 등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나라지만 아이들은 정말 너무 밝고 순수했다"며 "더 많은 분들이 르완다 후원에 동참하여 아이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선물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루살렘 마밀라 거리, 성경이야기 가득

예루살렘 알로브 마밀라 거리(Alrov Mamilla Avenue)에서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의 새로운 전시회가 8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전시회는 이스라엘 국내의 예술가들과 해외 예술가들의 작품들 중 성경과 관련된 모든 소재들로, 구도시 성벽 바로 밖에 위치한 쇼핑몰을 따라 전시됐다.

돌과 청동 및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들은 아담과 하와, 노아와 방주, 족장들의 부인들인 사라, 리브가, 라헬과 레아, 족장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친 롯, 솔로몬의 재판 같은 성경의 캐릭터들이 묘사됐다.

또한 전시회에서는 동물과 사람, 이야기와 우화들이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져, 방문객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예술의 눈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그동안 알로브 마밀라 거리에서 개최된 전시회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성경 이야기'는 이 거리에서 선보이는 세 번째 전시회로 이스라엘과 해외 예술가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고, '성경 이야기' 전시회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희망하는 많은 예술가들의 신청을 받았다.

2011년 2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회는 알로브 마밀라 거리를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이 무료관람 할 수 있다.

유현우 기자